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종교개혁기념주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0(통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세상과 다를 것 없이 권력과 물질숭배로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교회를 통해 섬김과 희생의 도리를 깨우치기보다는 자기의 의와 이름을 드높이려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이 오직 예수의 정신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해가 짧아져 어두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지도층의 부패는 끝이 없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정의의 밝은 빛을 환히 비취주시고 공의의 맑은 샘물이 넘쳐흐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교 독 문	104. 종교개혁주일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최문희 선생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92. 주여 어린 사슴이	다함께
성경봉독	I. 잠언16:9	인도자
	II. 마3:1-2, 4:12-17	유건형 집사
찬 양	I. '그러나'의 삶	이성운전도사
말 씬	II. 루터의 기쁜 소식의 재발견	한정애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585(통384).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길이 아닌 곳에 서있다면 속히 길을 되돌리십시오. 참된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그릇된 구습과 욕심에 이끌려 어둠과 밝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빛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종교개혁주일 기념 특강	다니엘서 공부 : 이성운 전도사
구교형 목사 (성서한국)	기도 : 권미숙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박성실 권사

10월	영접위원	조병무 하정석 정한구 최숙화 박홍재 최영혜				
	헌금위원	윤석철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대화에 실패할 때

- 2003년 6월 11일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을 ‘로드맵’(도로지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도로와 지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지도상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일단 도로 위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복잡해진다. 교통체증, 우회, 지체가 일어난다. 그럴 때 당신에게 지도 이상의 것이 필요해진다. 당신에게는 수백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바로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좋다. 1991년에 있었던 걸프전 이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십년 평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첫째는 마드리드, 그 다음은 오슬로, 그 다음은 캠프 데이비드와 타바.(역주: 이-팔 간의 평화협약이 이루어진 곳들) 그 이전에는 양측이 그렇게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 평화의 과정은 폭력으로 말미암아 붕괴되었다. 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일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폭력은 양 쪽 모두에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을 뿐이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많은 해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 2차 걸프전 이후에, 양쪽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양쪽의 지도자들은 아주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은 그들의 추종자들이 결코 그들이 말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부담이 큰 발언을 하였다. 아직까지는 징조가 좋다.

그러나 아직 극복되어야 할 하나의 장애물이 남아 있다. 그 큰 착오는 역사 속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것으로, 평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게임’(zero sum game)이라고 믿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는 진다. 만약에 내가 잃으면 너는 얻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와 반대이다. 폭력으로 양쪽은 모두 잃게 된다. 평화로 인해 양쪽은 모두 득을 보

게 된다. 어느 한쪽을 악마라 규정하고 또 다른 한 쪽을 영웅화하면서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평화는 두 개의 목소리로 부르도록 작곡된 ‘듀엣곡’이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주눅 들게 만들며 자신의 목소리만을 높이려는 사람은 ‘듀엣’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초기의 성경에서 자주 오역되었던 이상한 구절이 있다. 글자 그대로 다음을 읽어보아라. “그리고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들판에 이르자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쳐죽였다.”

구문이 맞지 않는다. 가인은 말하였다. - 그러나 성경은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다. 그 문장은 중간 부분이 깨어져 있다. 그 깨어진 부분은 예리한 조각만큼 날카롭다. 대화에 실패할 때 폭력이 시작된다. 폭력에 승자란 없다. 희생자만 있을 뿐이다. ‘로드맵’(도로지도)의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양쪽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계속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 전쟁은 무기로 이기지만 평화는 대화로 이긴다.

- 조나단 섹스, 「낙관주의에서 희망으로」 중에서



바로 그것이 지금의 중동에 필요하다. 총성이 멎게 하려면 정치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더욱 많다.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뿐 평화를 통해서만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믿는 일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인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파괴적인 무기들보다 강력한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대화이다. 나는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처음 가는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뿐이다
누구도 앞서 가지 않은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이 길을 갔다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
자기 전 생애를 끌고 넘은 이들이 있다
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 아니다
낮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 도종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구명자 김준호 곽혜자 김혜권 박영희 박창은 허정운
 배근수 김금순 이봉옥 이정규 이인섭 임주빈 최현옥 장원호 박성희
 이광용 형인순 박권동 강순배 이상국 허희범 윤석철 장혜숙 무명

월정헌금:

김순자 김수진 김승현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송의섭
 김문주 정원석 김현영 최윤희 이현순 이종현

감사헌금:

한상의 정영선 방문성 박혜경 김수은 안정숙 김윤숙 백성래 박병구
 하재두 권미숙 조항범 곽혜자 정미경 윤석철 장혜숙 이선희 이유일
 김미희 이재문 전성오 1남선교회 무명

생일감사헌금:

박아영

녹색꿈 헌금:

문금석 이종현 최숙화 최보미 한경숙 무명3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박영희	장혜숙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배부례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이소순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김진경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진정숙	최희영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심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정애	임미심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이순정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임영선	이정은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박찬정	안홍숙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심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이증자	방극숙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임창선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종교개혁기념주일** :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492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후 집회는 성서한국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구교형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2. **임원회** : 2부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서 임원회가 있습니다.
3. **나들이** : 속장인도자 나들이가 30일(금) 과천대공원 삼림욕장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4. **청파산행** : 31일(토) 북한산으로 산행을 갑니다. 3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10시에 모입니다.
5. **추수감사**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2부 연합으로 11시에 예배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찬양의 가을걷이** : 추수감사절 오후에 2부 찬양대와 참빛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제가 열립니다.
7. **주방봉사자 모집** :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주방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5명)
8. **신앙실천** : 우리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못한 편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고마운 분들에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엠마오 속 (다음 주 : 엠마오 속)

* 설거지 봉사 : 한상익 이준하 (다음 주 : 곽상준 최경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